

정신대문제 국제연대집회

3.1절 맞아 한-일-미-필리핀에서

만행 전세계 고발·사죄 촉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저지도

일본의 군국주의 정정범죄를 규탄하고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첫 국제연대집회가 3.1절 74돌을 맞아 한국·일본·미국·필리핀 등 4개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우려하는 국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집회는 그동안 분산적으로 벌어왔던 각국의 일제 피해배상요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첫 국제연대집회라는 점에서 일제탄핵의 국제여론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공동대표 이효재)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1절 정오를 기해 한국·일본·미국·필리핀 등 4개 나라 10여개 도시에서

서 현지 종군위안부 관련단체와 해외동포들이 일제의 만행 을 전세계에 고발하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여성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행동네트워크' 등 일본 사회단체 주축로 이달초 의롭게 숨진 종군위안부 출신 한정연 할머니 추도식이 열리며, 규슈·시모노세키 등지에서도 최창화 목사 등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이 '종군위안부 재판을 도와주는 모임' 결성식을 갖는다.

미국에서도 동포들로 구성된 뉴욕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이날 뉴욕의 유엔본부 정문 앞에서 결기대회를 가진 뒤 한미솔트 팜장에서 주일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필리핀 마닐라 역 앞 광장에서도 부산국립운동사

민연합 주축로 일본 군함 모형과 이완용 초상화 등의 화형식을 갖는다.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의 전후 배상을 확실히 하는 모임' '일본여성행동네트워크' 등 일본 사회단체 주축로 이달초 의롭게 숨진 종군위안부 출신 한정연 할머니 추도식이 열리며, 규슈·시모노세키 등지에서도 최창화 목사 등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이 '종군위안부 재판을 도와주는 모임' 결성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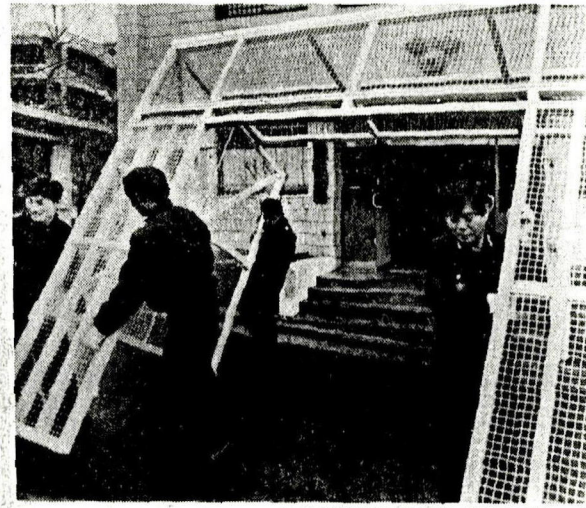
미국에서도 동포들로 구성된 뉴욕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이날 뉴욕의 유엔본부 정문 앞에서 결기대회를 가진 뒤 한미솔트 팜장에서 주일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필리핀 마닐라 역 앞 광장에서도 부산국립운동사

일제의 정정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연대집회는 한국정대협이 지난해 말 필리핀, 대만, 일본, 타이, 홍콩 등 5개국 정신대문제대책 관련단체들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해 한국의 전 민중이 일어섰던 3.1절을 기해 동시다발집회를 갖고 정신대 문제 진상규명 등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일본·필리핀 등이 호응함으로써 성사됐다.

특히 필리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한국정대협 회원 등이 일 년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 감명받아 지난해 4월부터 마닐라 주일대사관앞에서 같은 형식의 '수요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 총무 이미경씨는 "이번 국제연대집회는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일제의 과거 전쟁범죄와 최근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대해 피해당사자들이 공동대응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출소 보호철망 제거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27일 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파출소의 보호철망을 일제히 뜯어냈다.

은행옆집 3명

현장서 공기총·절단기 등 발 벽엔 드릴·정으로 뚫다만 지

【전주=임석규 기자】 26일 밤 10시40분과 27일 오전 11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1 간이주점 실내포장마차에서 주인 김선희(47·여)씨와 종업원 장점수(55·여·완산구 평화1동), 손남 최종오(64·상업·완산구 효자동3가)씨 등 3명이 숨진 채로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인 김씨는 두손과 두발이 녹색 끈으로 묶인 뒤 머리에서 목부위까지 비닐봉지로 씌워지고 비닐

테이프로 입과 코가 막혀 숨진 채 1층 안방의 장롱 안에서 발견됐으며 종업원 장씨와 최씨도 2층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됐다.

1층 안방에서 2m쯤 떨어진 벽에는 드릴과 정을 이용해 구멍을 뚫으려던 흔적이 지름 20cm 크기 정도로 남아 있었으며 이 흔적 아래 바닥에는 공기총 2자루와 망치·정·드릴·절단기 등 공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공기총 2자루는 지난 1월초 완산구 효자동 서

부총공기총경대기부고이행지고한무없자하고

술렁이는 안기부 신임부장 관련 '위상' 논란

"국내정보 찬밥" 점치기도

"안기부가 앞으로 완결될태하기 위해 혁명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해 왔으나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추호의 동료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신임 김대 안기부장은 지난 26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이러한 요지의 취임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 부장의 취임사는 안기부의 위상변화와 관련해 그동안

지 주목되고 있다.

안기부는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공작정치 근절" "안기부 위상 재정립"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동자부 등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안기부 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의 한 직원은 "동자부 해체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앞으로 각광받을 분야로 옮기기를 바라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빚어지고 있다고 이 직원은 귀띔했다.

이런 직원들의 동요상황에서 신임 김대 부장의 취임은 안기부의 위상변화와 관련해 내부에서 엿갈리는 전망을 놓고 있다. 우선 교수 출신 안기부장의 취임 자체가 안기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의 안기부 개혁방향에 신임 김 부장이 제

들이 부장으로 거론됐으나 비서실에서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신임 김 부장이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안기부 개편은 대통령 비서실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임 김 부장을 환영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5공탄생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확히 정보를 분석해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부장'이 됐다는

박철언의원, 용팔이사건 두 "당시 국내정치 담당은 이

박철언 국민당 의원은 27일 자신이 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소치 유파이사건) 당시 안기부

에 대한 법률 자문과 남북·북방문 제 전달이었을 뿐 국내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자리였다"고 해명하

이 담당무정